

FIP-2016-0004 (통권 제 229호, 2016. 05)

**세계교역에서의 수급구조로 본
우리 수출의 구조적 불균형과 개선과제**

ISSUE
PAPER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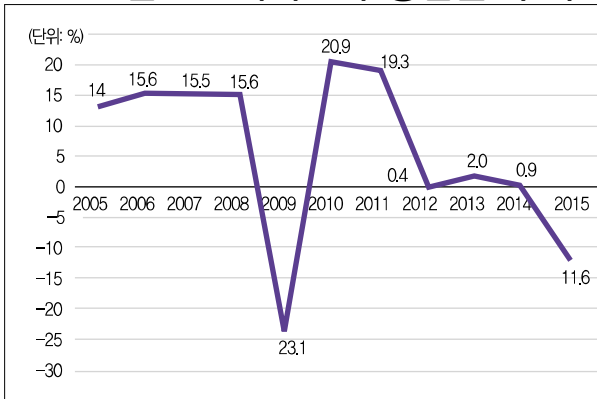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연구배경 | 1 |
| II. 국내 수출구조 · 세계 교역구조 비교 | 4 |
| 1. 성질별 구조 분석 | 4 |
| 2. 품목별 분석 : 10대 수출품목 | 7 |
| III. 주요 신산업 7대 유망품목 발굴 | 9 |
| 1. 화장품 | 10 |
| 2. 조제식품 | 11 |
| 3 태양열 집열기 및 기타 방열기 | 12 |
| 4. 리튬이온축전지 | 13 |
| 5. 인체용 백신 | 14 |
| 6. 탄소섬유 등 비전기용 흑연제품 | 15 |
| 7. 전기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| 16 |
| IV. 결론 및 시사점 | 17 |

-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본회 국제경제팀 이현직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.
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TEL : 02-3771-0170 FAX : 02-6234-5224 E-mail : hyounjeek.lee@fki.or.kr

I. 연구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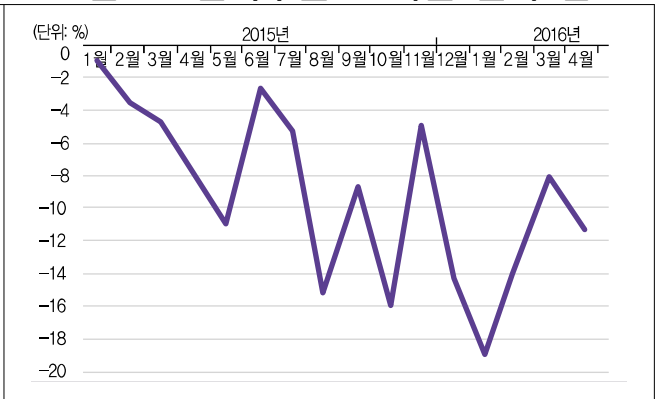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전 세계적으로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 - 전 세계 교역 성장률은 '11년에 19.3%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,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어, 지난해('15년)에는 △11.6%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
 - 교역 감소의 여파로 우리 수출은 역대 최장기인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
 - 2015년 1월, 전년 동기 대비 △1.0%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이래, 2016년 4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
<그림 1> 세계교역 증감률 추이



주: 수출액기준, '15년 1~8월 기준
자료 : KITA

<그림 2> 한국수출 16개월 연속 감소



주: 전년 동기 대비
자료: KITA

- 전 세계 교역규모의 감소는 글로벌 저성장, 원자재 가격 하락, 현지 생산 확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
 -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(철강), 저유가(석유화학) 등의 이유로 수출단가 하락
 - (WTO) 세계 수출단가 증가율 : ('13)△0.6% → ('14)△2.0% → ('15)△14.7%
 - 중국의 자급율 확대, 기업의 현지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 병존
 -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0년 64%에서 2014년에는 50%로 감소하였음
 -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로 통관기준 수출 실적은 감소효과가 있음

<표 1>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

(단위: %)

| | 자동차 | 휴대폰 | LCD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2008년 | 27.6 | 45.0 | 0 |
| 2014년 | 49.8 | 86.3 | 13.2 |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2015년

- **교역감소와 함께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수요변화로 품목별 교역비중의 변화가 진행 중**
 - 교역품목별 비중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해당 품목의 수요를 의미하며 비중이 크고 증가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크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
- **본 보고서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제반 요인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의 수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전략 제시에 노력하였음**
 - 우리의 수출을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으로 보고, 세계 시장에서의 수입을 수요로 설정하여 세계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함
 - * 품목의 기술 수준, 가격 경쟁력, 브랜드 파워, 정부의 지원정책, 환율 등 수급요인 외 다른 경쟁요소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
- **(분석방법)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, 125개국의 교역 데이터(최신 2014년) 중 우리의 수출과 전 세계 수입을 비교 분석함**
 - 국내 수출구조·세계 교역구조 비교 시 HS코드 4단위 재화 기준으로 분류
 - * ('04년) '02년 개정안, ('07-'10년) '07년 개정안, ('14년) '12년 개정안 적용
 - 성질별 수출구조 분석 시 BEC* 1단위, 2단위 혼합기준 적용
 - * Broad Economic Categories

<표 2> BEC 1, 2단위 분류표

| BEC 코드 | 분류 |
|--------|---|
| 1 | Food and beverages |
| 2 | Industrial supplies nes |
| 3 | Fuels and lubricants |
| 4 | Capital goods (except transport equipment),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|
| 5 | Transport equipment,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|
| 6 | Consumption goods nes |
| 7 | Goods nes |
| 11 | Food and beverages, primary |
| 12 | Food and beverages, processed |
| 21 | Industrial supplies nes, primary |
| 22 | Industrial supplies nes, processed |
| 31 | Fuels and lubricants, primary |
| 32 | Fuels and lubricants, processed |
| 41 | Capital goods (except transport equipment) |
| 42 | Parts and accessories of capital goods (except transport equipment) |
| 51 | Transport equipment, passenger motor cars |
| 52 | Transport equipment, other |
| 53 | Parts and accessories of transport equipment |

- 신산업 품목은 HS코드 '12년 개정안 기준으로 분석(기본 6단위, 일부 4단위)

Ⅱ. 국내 수출구조 · 세계 교역구조 비교

1. 성질별 구조 분석

□ 교역 품목을 크게 분류하면 원자재, 소비재 및 자본재로 나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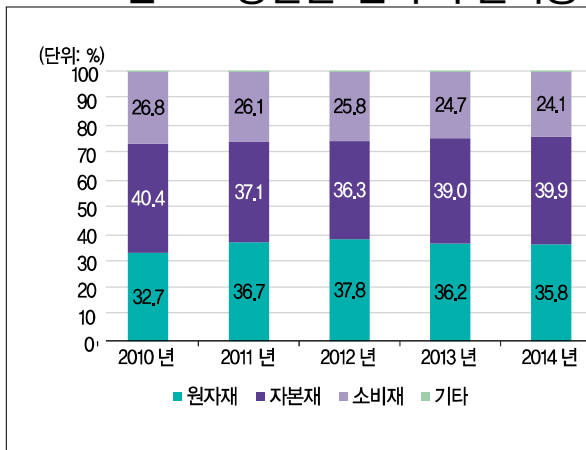
<표 3> 수출품목 성질별 분류표

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원자재 | |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 등 제품 |
| 자본재 | | 생산 기계나 원자재 따위의 생산 수단을 만들어 내는 제품 |
| 소비재 | 직접소비재 | 사용시 소멸되는 제품으로 식품류 등이 해당 |
| | 비내구소비재 | 1년 이내로 사용하며 의류, 화장품, 섬유 등이 해당 |
| | 내구소비재 | 1년 이상 사용하며 가전제품, 공예품, 생활용품 등이 해당 |

□ 부존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원자재를 제외하면, 세계 시장은 자본재(24.0%) 보다는 소비재(30.1%) 비중이 더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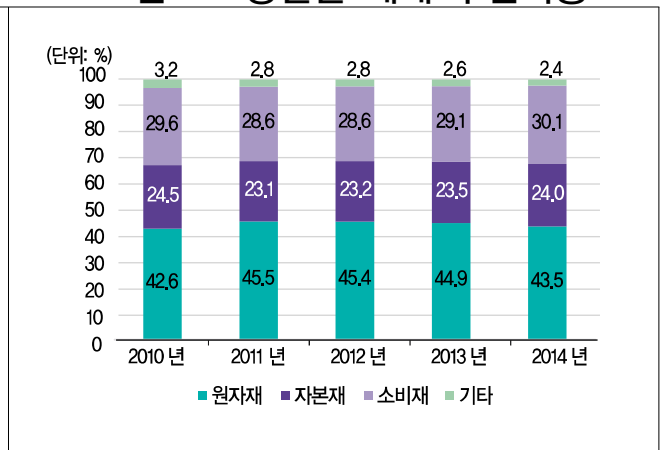
- 2014년 전 세계 교역 중 소비재 비중은 30.1%이며, 자본재 비중은 24.0%임
- 소비재만 보면, 내구소비재, 비내구소비재, 직접소비재 순으로 비중이 높음
- * ('14년) 세계 : 내구소비재 14.3%, 비내구소비재 9.1%, 직접소비재 6.7%

<그림 3> 성질별 한국 수출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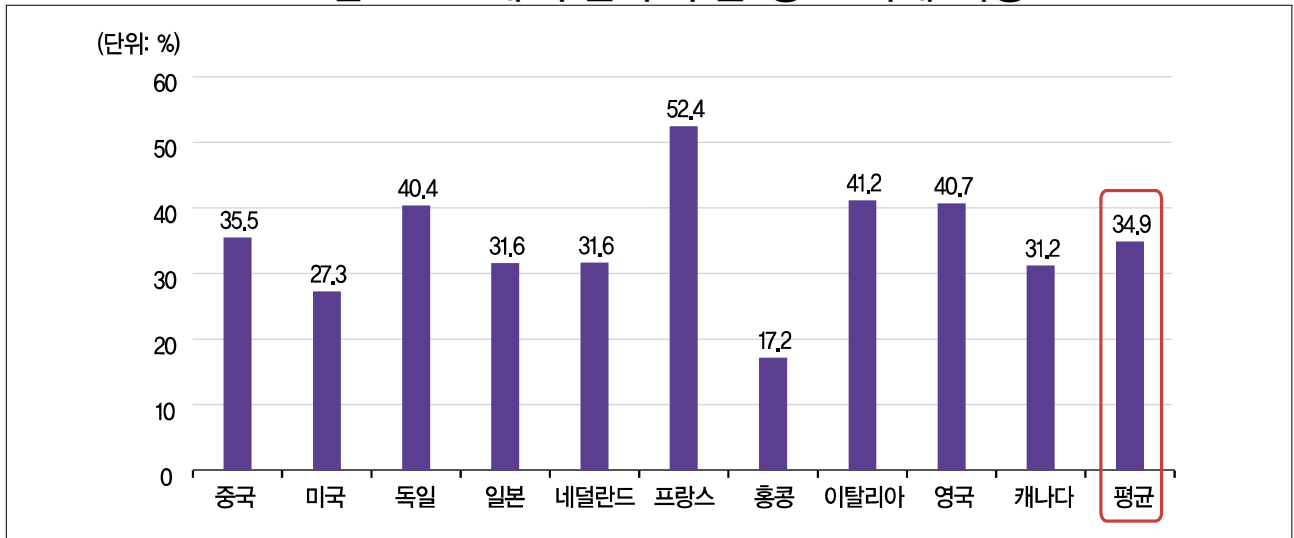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그림 4> 성질별 세계 수입비중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그림 5> 10대 수출국 수출 중 소비재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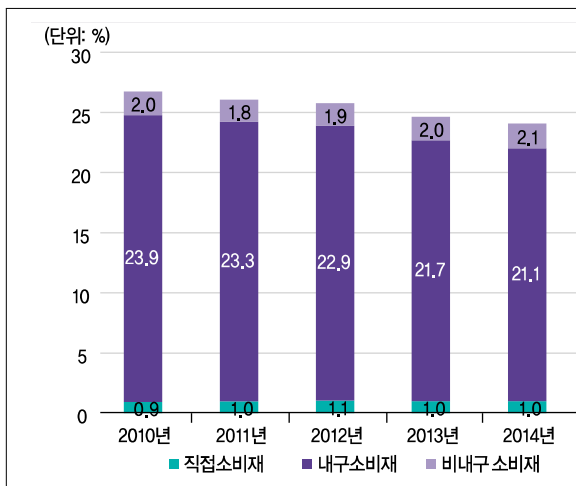
주: 한국 제외, 2014년 기준

자료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□ 반면,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재와 소비재 중에서는 자본재 비중이 높고, 소비재 중에서는 내구소비재 비중이 월등히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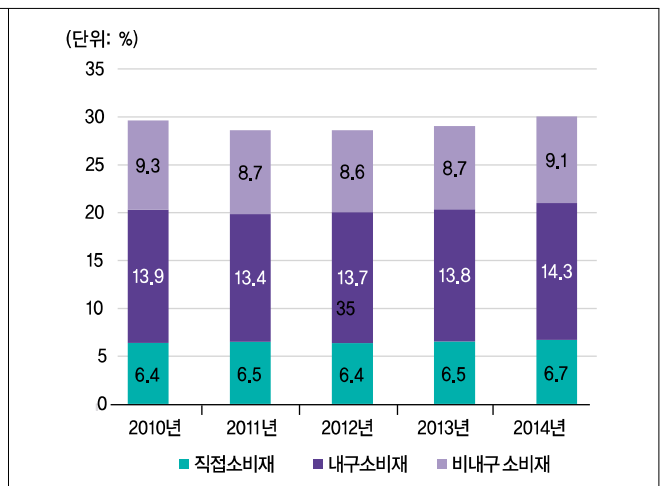
- ('14년) 한국 : 자본재 39.9%, 소비재 24.1%
- ('14년) 한국 : 내구소비재 21.1%, 비내구소비재 2.1%, 직접소비재 1.0%

<그림 6> 한국 소비재수출 구성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그림 7> 세계 소비재수입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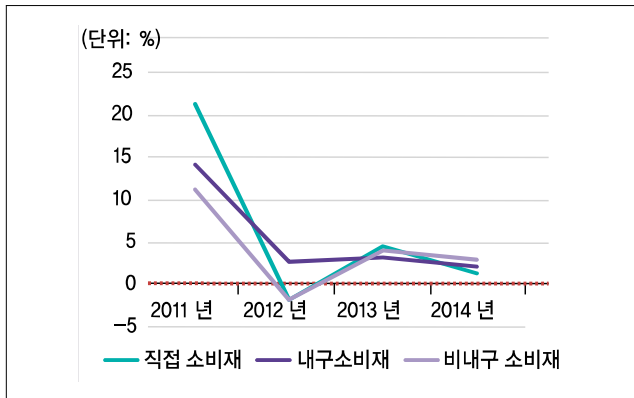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□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수출구조가 잠재적으로 우리 수출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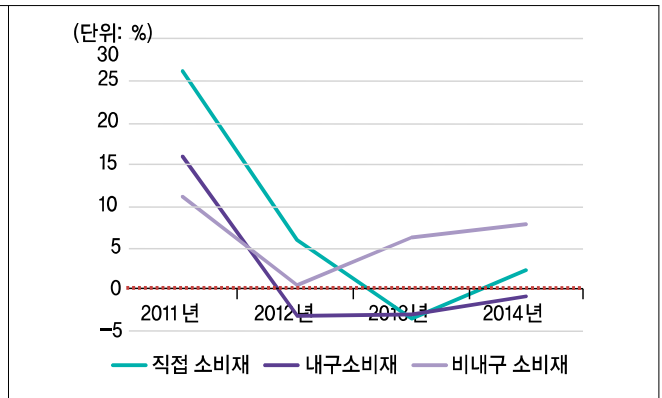
- 2012년 이후 세계 소비재 수입액은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우리 수출은 특히 내구소비재 부분에서는 감소세를 보임
 - * 내구소비재 수출액 ('12년) $\Delta 3.1\%$ \rightarrow ('13년) $\Delta 2.9\%$ \rightarrow ('14년) $\Delta 0.7\%$
 - * 비내구소비재 수출액 ('12년) 0.6% \rightarrow ('13년) 6.3% \rightarrow ('14년) 7.9%
-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직접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 대신에 수요가 적은 자본재와 내구소비재에 우리 수출이 집중되는 것은 수급측면에서는 불안요인임

<그림 8> 세계 소비재수입액 증가율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그림 9> 한국 소비재수출액 증가율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2. 품목별 분석 : 10대 수출품목

-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은 조선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석유화학, 자동차/부품 등으로 세부적 순위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음
- 10대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4년 4.8%에서 2014년 6.2%로 1.4%p 상승
- * 디스플레이, 조선, 석유화학,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

<표 4> 10대 수출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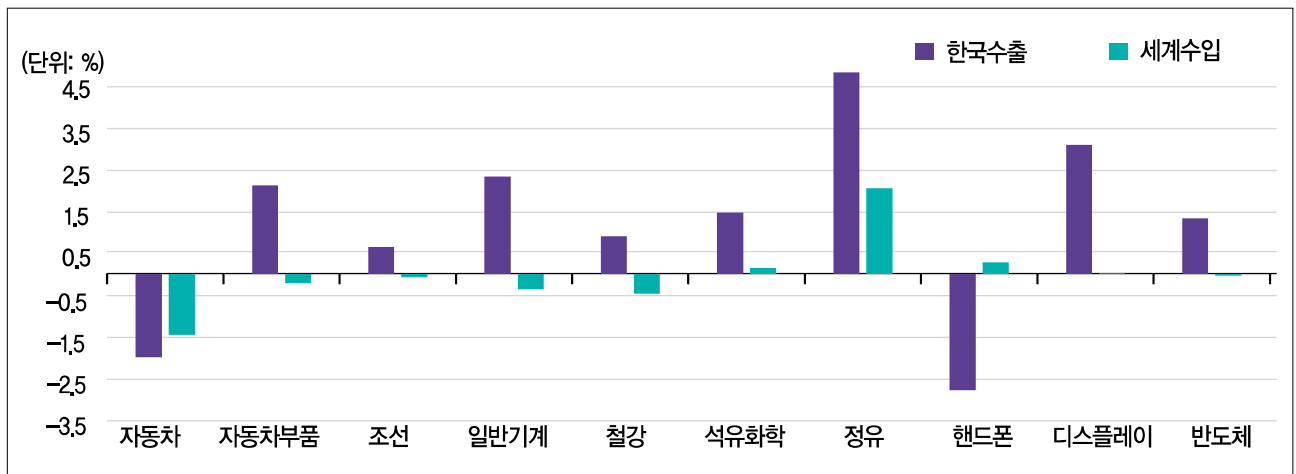
| | 전체 | 조선 | 디스플레이 | 반도체 | 석유화학 | 자동차부품 | 자동차 | 핸드폰 | 정유 | 철강 | 일반기계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2004 (%) | 4.8 | 24.9 | 10.5 | 6.9 | 4.8 | 2.5 | 4.9 | 17.2 | 4.4 | 3.7 | 2.3 |
| 2014 (%) | 6.2 | 30.2 | 26.5 | 9.5 | 8.7 | 6.3 | 5.7 | 5.5 | 5.5 | 5.1 | 3.4 |
| 점유율 변화 (%p) | 1.4 | 5.3 | 16.0 | 1.2 | 3.9 | 3.8 | 0.8 | △11.7 | 1.1 | 1.4 | 1.1 |

- 전체 수출 중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

- 10대 수출품목 비중은 2004년 61.5%에서 2014년 73.6%로 12.1%p 상승

* ('04) 61.5% → ('07) 72.7% → ('10) 74.5% → ('14) 73.6%

<그림 10> 10대 수출품목의 한국수출·세계수입 중 비중변화 ('04~'14년)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□ 반면, 세계 교역 중 우리 10대 품목의 비중은 2007년 최고 40.7%에서 2014년 36.8%로 3.9%p 하락하는 등 우리의 시장기반이 축소되고 있음

* 10대 품목 비중 : ('04) 36.9% → ('07) 40.7% → ('10) 36.2% → ('14) 36.8%

○ 특히,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이 세계의 수요 흐름과는 역행

<표 5> 산업별 한국 수출·세계수입 비중변화

| 대분류 | 소분류 | 구분 | 2004 (%) | 2007 (%) | 2010 (%) | 2014 (%) | 2004-2014 (%p) | 흐름 |
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기계산업군 | 자동차 | 한국수출 | 10.4 | 9.9 | 7.5 | 8.4 | △2.0 | 일치 |
| | | 세계수입 | 6.0 | 5.5 | 4.3 | 4.5 | △1.5 | |
| | 자동차부품 | 한국수출 | 2.1 | 3.1 | 3.8 | 4.2 | 2.1 | 역행 |
| | | 세계수입 | 2.3 | 2.1 | 2.0 | 2.1 | △0.2 | |
| | 조선 | 한국수출 | 6.0 | 7.2 | 10.0 | 6.7 | 0.7 | 역행 |
| | | 세계수입 | 0.3 | 0.4 | 0.5 | 0.3 | △0.1 | |
| 일반기계 | 한국수출 | 9.8 | 9.9 | 10.9 | 12.2 | 2.4 | 역행 | |
| | 세계수입 | 11.6 | 14.7 | 11.4 | 11.3 | △0.4 | | |
| 소재산업군 | 철강 | 한국수출 | 5.5 | 6.3 | 6.3 | 6.4 | 0.9 | 역행 |
| | | 세계수입 | 4.3 | 4.9 | 4.1 | 3.8 | △0.5 | |
| | 석유화학 | 한국수출 | 6.3 | 8.1 | 8.0 | 7.8 | 1.5 | 일치 |
| | | 세계수입 | 4.2 | 4.2 | 4.1 | 4.3 | 0.2 | |
| | 정유 | 한국수출 | 4.0 | 6.5 | 6.8 | 8.9 | 4.9 | 일치 |
| | | 세계수입 | 2.5 | 3.6 | 4.2 | 4.6 | 2.1 | |
| IT제조업 | 핸드폰 | 한국수출 | 7.6 | 5.0 | 5.5 | 4.8 | △2.8 | 역행 |
| | | 세계수입 | 1.2 | 1.0 | 1.0 | 1.4 | 0.3 | |
| | 디스플레이 | 한국수출 | 1.2 | 5.3 | 6.4 | 4.3 | 3.1 | 역행 |
| | | 세계수입 | 0.4 | 0.5 | 0.5 | 0.4 | 0.0 | |
| | 반도체 | 한국수출 | 8.5 | 8.6 | 9.2 | 9.9 | 1.4 | 역행 |
| | | 세계수입 | 4.1 | 3.8 | 4.2 | 4.0 | 0.0 | |
| 총합 | 한국수출 | 61.5 | 72.7 | 74.5 | 73.6 | 12.1 | 역행 | |
| | 세계수입 | 36.9 | 40.7 | 36.2 | 36.8 | △0.1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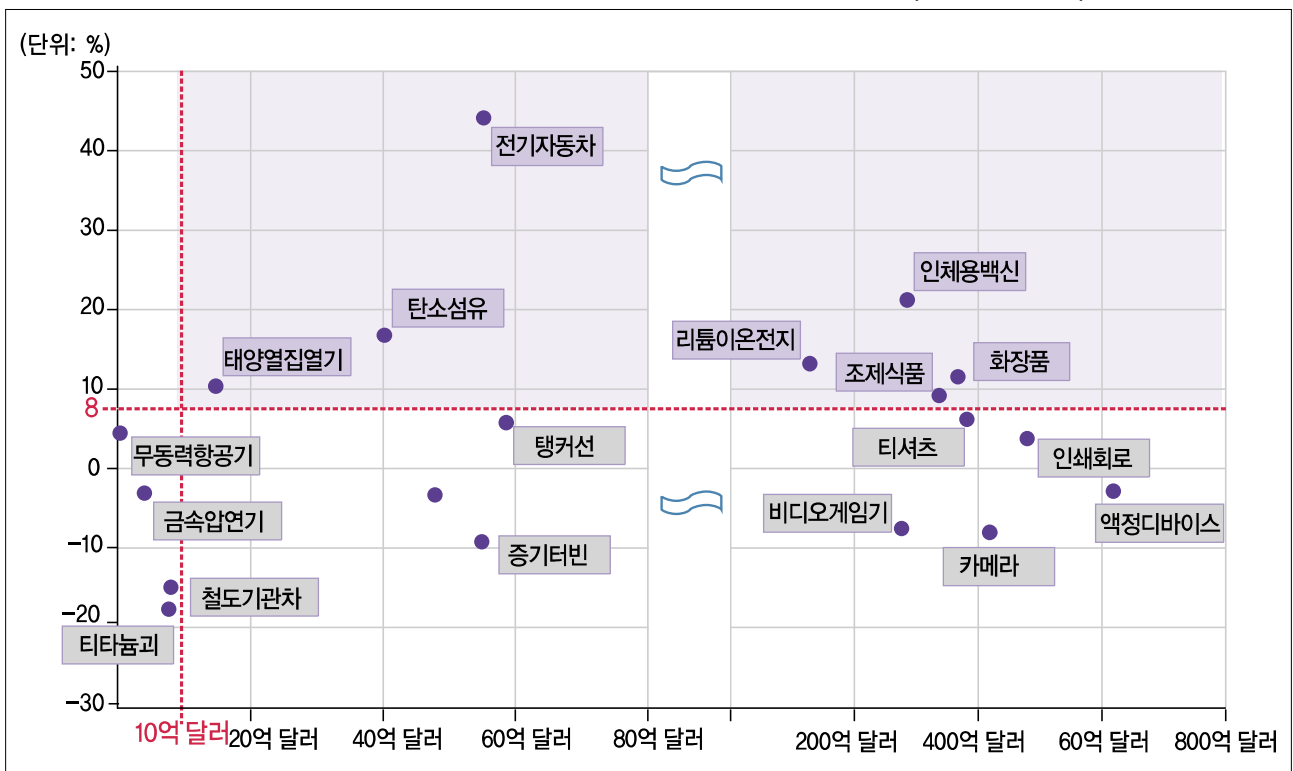
□ 세계시장에서의 수급만으로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, 세계시장에서 교역비중이 감소하지만 우리 수출비중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점점 덜 팔리는 품목에 우리 기업이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

○ 이에, 세계교역에서 성장품목을 살펴봄으로써 수출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Ⅲ. 주요 신산업 7대 유망품목 발굴

-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
 - 교역규모와 증가율 측면에서, 세계시장에서 성장세 높은 유망 품목* 발굴
 - * 교역규모 10억\$ 이상 품목 중 교역증가율이 높은(8%) 품목을 선정
 - * UN Comtrade가 2012년에 HS Code를 재분류한 관계로 동일성 유지를 위해 2012년 이후 자료만 통계처리 하였음
- 세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교역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는 화장품, 조제식품, 태양열 집열기, 리튬이온전지, 인체용백신, 탄소섬유, 전기자동차 등이 있음
 - 동 품목은 산업부 선정 5대 신산업(고급소비재, 에너지신산업, 바이오헬스, 신소재, ICT제조융합)에 포함되어 정책적 지원 가능성도 있음

<그림 11> 세계시장에서 교역증가 품목 ('12~'14년)



주 : 핸드폰, 수송용자동차, 정유제품 등 전통품목 제외
 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1. 화장품 (고급소비재, HS코드 3304¹⁾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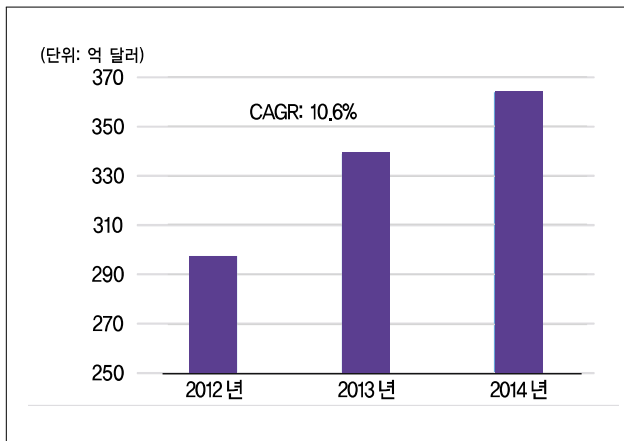
□ 세계 화장품 교역은 '12~'14년간 연평균 10.6%로 고속 성장 중임

* 총 교역규모는 '14년 기준 약 363억 달러

□ 전 세계 화장품 교역 중 우리의 비중은 2012년 2.6%에서 2014년 4.2%로 1.6배로 증가하면서 세계 13위권에서 6위로 급성장하는 등 가능성 높음

○ 다만, '14년 기준 전체 수출 중 對중국, 홍콩 등 중화권의 비중이 55.7%를 차지하는 등 중화권 편중현상이 있어 수출지역 다변화가 필요함

<그림 12> 화장품 세계교역 증가율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그림 13> 국가별 화장품 수출 점유율

| 국가 | 2012년 점유율 (%) | 2014년 점유율 (%) | 순위변동 (2012→2014)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프랑스 | 21.2 | 20.6 | 1 → 1 |
| 미국 | 11.8 | 11.4 | 2 → 2 |
| 독일 | 9.4 | 8.4 | 3 → 3 |
| 싱가포르 | 5.7 | 5.8 | 4 → 4 |
| 영국 | 5.6 | 5.7 | 5 → 5 |
| --- | | | |
| 한국 | 2.6 | 4.2 | 13 → 6 |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아모레퍼시픽 중국 화장품시장 진출 사례>

- 영화, 드라마에 기반을 둔 한류, 같은 동양인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라는 인식, 지리적 인접성 등이 한국 화장품 선호 요인
- 1994년 한국과 문화적, 인종적으로 동질성이 가장 짙은 지역인 동북3성에 진출을 시작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현지 소비자 조사를 통해 중국시장을 공략
 - 라네즈라는 단일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대규모 촉진 활동을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본전략 동시에 백화점 판매를 위주로 하는 고급 브랜드로 포지셔닝하여 강한 브랜드로 육성
 - 광고 모델로 송혜교를 기용하여 한류열풍 효과 극대화

1) 기본 6단위로 분석했으나, 화장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6단위는 지나치게 세부적이므로 4단위로 설정

2. 조제식품 (직접소비재, HS코드 210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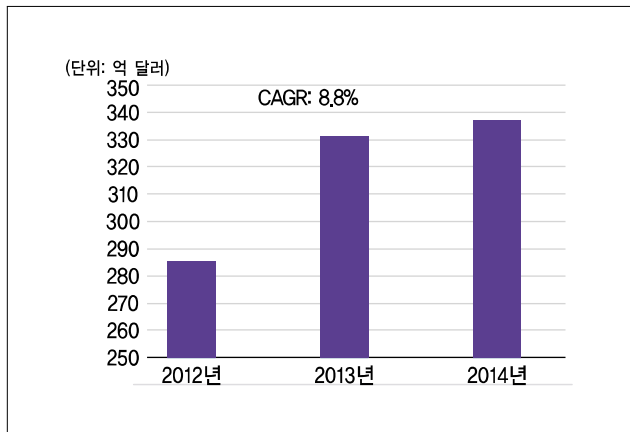
□ 조제식품은 전 세계 교역이 '12~'14년간 연평균 8.8% 증가한 고성장산업임

* 총 교역규모는 '14년 기준 약 337억 달러

□ 전 세계 조제식품 교역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1.6%로서 세계 17위에 불과

- 농업과 함께 식품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산업이라는 인식이 약한 분야임
- 한류를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 6차산업화²⁾와 더불어 식자재산업 육성하고, FTA네트워크와 기업의 해외유통망을 활용한다면 수출확대 가능성 있음

<그림 14> 조제식품 세계교역 증가율 <그림 15> 국가별 조제식품 수출 점유율



| 국가 | 2012년 점유율 (%) | 2014년 점유율 (%) | 순위변동 (2012→2014)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미국 | 16.9 | 15.6 | 1→1 |
| 독일 | 10.2 | 9.4 | 2→2 |
| 네덜란드 | 9.4 | 8.6 | 3→3 |
| 프랑스 | 5.4 | 5.1 | 4→4 |
| 싱가포르 | 1.6 | 4.4 | 17→5 |
| --- | | | |
| 한국 | 1.7 | 1.6 | 16→17 |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싱가포르 제조식품 해외진출 사례³⁾>

- '04년 이후 싱가포르 식품 내수시장규모는 25억 싱가포르달러 선에 머물었으며, 이는 식품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함
- 정부협회의 지원과 기업 자체적 노력이 어우러져 싱가포르의 '14년 시장점유율 4.4% 기록하며, '04년 대비 2.8%p 증가하고 순위도 17위에서 5위로 상승
 - IE 싱가포르(싱가포르 국제기업청)는 식품업체들이 런던 Selfridges Food Hall에서 제품들을 전시하도록 지원
 - 싱가포르식품제조업협회는 2006년 이후 회원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, 식품 제조기업들이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매년 8~12회의 해외 무역박람회 개최

2) 6차산업이란 1차*2차*3차산업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활동. 1차(농식품)*2차(제조가공)*3차(유통판매·체험·관광·서비스)

3) Kotra 글로벌윈도우 '싱가포르, 올 식품 수출 40억 달러 돌파 기대'

3. 태양열 집열기 및 기타 방열기(에너지산업, HS코드 73229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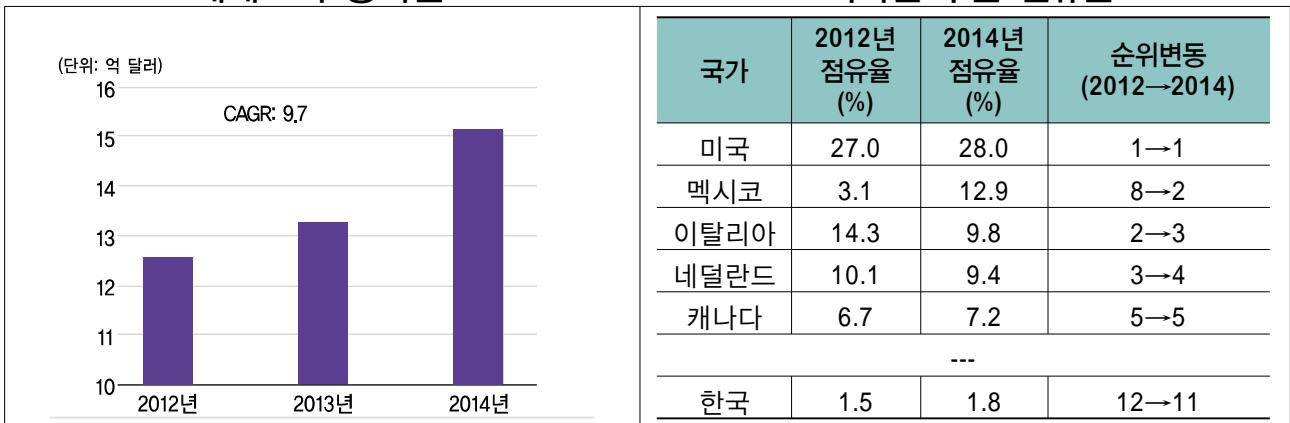
□ 태양열 집열기 및 기타 방열기의 전 세계 교역은 '12~'14년간 연평균 9.7% 증가하는 고성장산업임

* 총 교역규모는 '14년 기준 약 15억 달러

□ 전 세계 교역 중 우리의 비중은 1.8%로 세계 11위에 불과해 세계시장에서의 존재감이 크게 미흡함

○ 멕시코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을 10%p 가까이 올리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음

<그림 16> 태양열집열기 및 기타방열기 세계교역 증가율 <그림 17> 태양열집열기 및 기타방열기 국가별 수출 점유율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멕시코 태양에너지산업 개발 사례4>

-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기금의 사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, 태양열 보일러 진흥프로그램 (PROCASOL)을 운영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
- 미국 서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(Baja California)는 멕시코의 자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부분과 미국, 유럽 등지를 겨냥한 솔라 패널 생산기지가 되어 태양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부상
 - Diego-Tijuana 국경지대의 동쪽에 위치하는 Calexico-Mexicali 지역은 “Silicon Border”라고 명명될 정도
- 멕시코 국경지대 주요 태양광 기업
 - Q-Cell : Mexicali시에 35억 달러 규모의 실리콘 박막모듈 생산단지 조성
 - Kyocera : 3,300만 달러 투자, Tijuana시 연간 150MW 규모의 솔라패널 생산
 - Unisolar : Tijuana에서 연간 68MW 규모의 솔라패널 생산
 - BP Solar : 미국시장을 겨냥, Jabil Circuit에서 45MW 솔라패널 생산

4)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‘멕시코 태양광/태양열 발전 시장 분석’

4. 리튬이온축전지 (에너지신산업, HS코드 85076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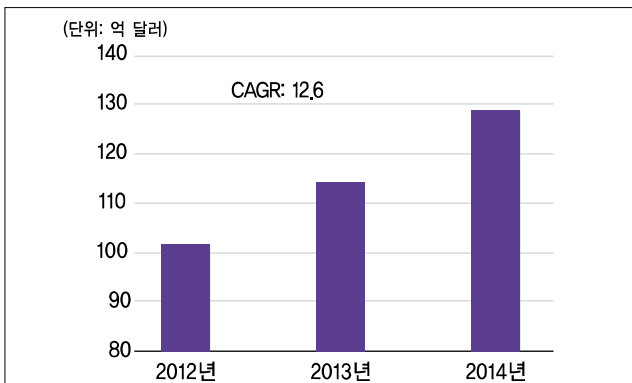
□ 리튬이온축전지의 전 세계 교역은 '12~'14년간 연평균 12.6% 성장

* 총 교역규모는 '14년 기준 약 128억 달러

□ 우리나라는 16.0%의 점유율로 세계 2위

- 수출시장 점유율은 다소 2.0%p 감소했으나, 일본 제치며 3위에서 2위로 상승
- LG그룹, 삼성SDI 등 주요 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큼

<그림 18> 리튬이온축전지 세계교역 증가율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그림 19> 리튬이온축전지 국가별 수출점유율

| 국가 | 2012년 점유율 (%) | 2014년 점유율 (%) | 순위변동 (2012→2014)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중국 | 39.0 | 38.5 | 1 → 1 |
| 한국 | 18.0 | 16.0 | 3 → 2 |
| 일본 | 20.0 | 14.3 | 2 → 3 |
| 홍콩 | 9.8 | 9.8 | 4 → 4 |
| 미국 | 2.1 | 5.3 | 6 → 5 |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LG그룹 리튬이온축전지 개발 사례>

- 2차전지시장 휴대용 IT기기용 소형 2차전지 위주로 발전해왔으나, 리튬2차전지 활용한 전력저장시스템(ESS) 시장이 2020년 643억 달러로 전체 2차전지 시장의 54% 차지할 것으로 예상⁵⁾
- '91년부터 배터리 산업에 투자 시작했으며, '99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전지 개발 성공
- '05년 2,000억 원 적자 시에도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계속한 결과, LG화학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세계1위 업체로 도약하였으며, ESS시장 선점 중
 - LG전자 '15년 7월 국내 최대규모 용량인 1.4MWH급 ESS 통합시험 설비 구축
 - LG화학 '15년 12월 세계1위 ESS업체인 AES에너지 스토리지와 2020년까지 1GWH 규모 배터리 공급계약
 - LG CNS '16년 4월 미국 뉴저지 홀리데이인 호텔에 1MW급 ESS 구축

5) LG경제연구원, “에너지 저장이 담을 미래, 배터리가 에너지 시장 바꾼다”

5. 인체용 백신 (바이오헬스, HS코드 300220)

□ 인체용 백신은 신종 플루 등의 여파로 전 세계 교역이 '12~'14년간 연평균 20.7% 증가율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 산업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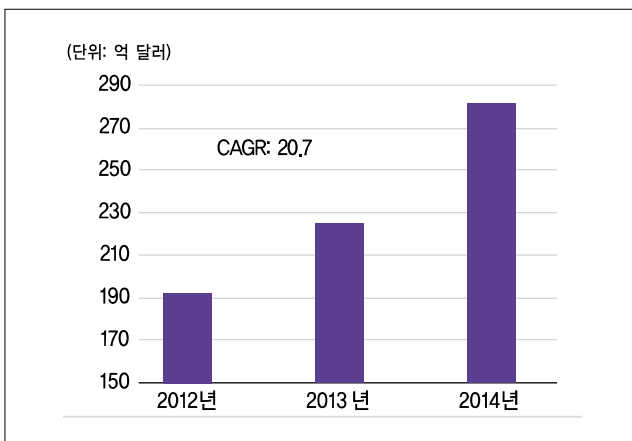
* 총 교역규모는 '14년 기준 약 281억 달러

□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0.7%의 점유율로 세계 13위에 그치고 있어 존재감이 미흡하나 최근 들어 기술력 제고로 성장가능성 있음

○ 특히, 2012년에 비해 점유율이 0.2%p 감소하고 전 세계 순위도 10위에서 13위로 순위가 하락하는 등 점점 세계적 기업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

○ 다만, 인체용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최근 들어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등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국적 기업들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은 편임

<그림 20> 인체용 백신 세계교역 증가율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그림 21> 인체용 백신 국가별 수출점유율

| 국가 | 2012년 점유율 (%) | 2014년 점유율 (%) | 순위변동 (2012→2014)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벨기에 | 33.3 | 36.6 | 1 → 1 |
| 프랑스 | 16.7 | 17.7 | 2 → 2 |
| 아일랜드 | 14.7 | 9.5 | 3 → 3 |
| 영국 | 6.0 | 8.7 | 5 → 4 |
| 미국 | 8.5 | 8.5 | 4 → 5 |
| --- | | | |
| 한국 | 0.9 | 0.7 | 10 → 13 |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사례>

- 의료비 지출 절감요구 증대, 주요 선진국의 허가규정 완비, 미국시장 개방 등으로 인하여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 중
- 삼성그룹, 2011년 미국 키타일즈와 합작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
-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(3만 리터)과 올해 1분기 가동 예정인 제2공장(15만 리터) 등 현재 18만 리터의 캐파에서 추가로 제3공장(18만리터)을 증설하여 연간 36만 리터의 캐파 갖출 예정
- 제3공장 증설 완료 시 글로벌 경쟁사 론자(26만 리터)와 베링거인겔하임(24만 리터) 제치고 세계 1위 CMO 사업자로 성장 예정

6. 탄소섬유 등 비전기용 흑연제품 (신소재, HS코드 6815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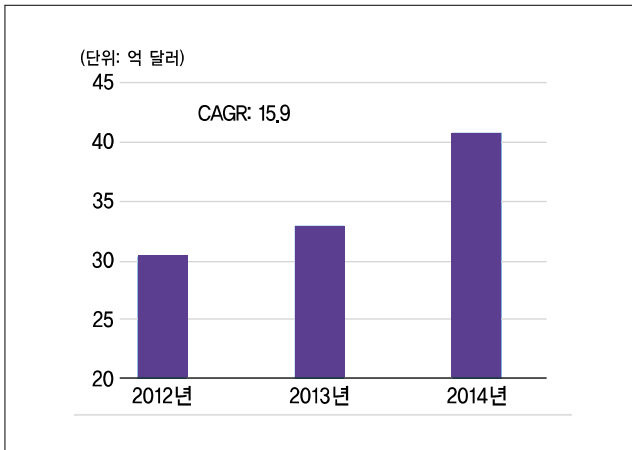
□ 탄소섬유 등 비전기용 흑연제품의 전 세계 교역은 '12~'14년간 연평균 15.9% 성장

* 총 교역규모는 '14년 기준 약 40억 달러

□ 우리나라는 점유율이 1.2%p 증가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순위를 7위로 소폭 상승시켰으나 글로벌 마켓에서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황

○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, '11년 효성의 자체개발 이후 양산에 성공하여 수출 국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성과가 기대됨

<그림 22> 탄소섬유 등 비전기용 흑연제품 세계교역 증가율

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그림 23> 탄소섬유 등 비전기용 흑연제품 국가별 수출점유율

| 국가 | 2012년 점유율 (%) | 2014년 점유율 (%) | 순위변동 (2012→2014)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미국 | 24.3 | 25.6 | 1→1 |
| 일본 | 19.4 | 15.0 | 2→2 |
| 독일 | 14.2 | 13.5 | 3→3 |
| 프랑스 | 11.7 | 10.6 | 4→4 |
| 영국 | 9.9 | 9.5 | 5→5 |
| --- | | | |
| 한국 | 1.8 | 3.0 | 9→7 |

자료 : UN Comtrade, www.comtrade.un.org/data/

<효성 탄소섬유 개발 사례>

- '06년 본격적 개발에 돌입하여 약 500여 원의 R&D비용을 들여 '11년 국내기업 최초로 탄소섬유 개발 성공
- '13년 5월 전주에 2,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 준공 이후, '20년까지 1조 2천억 투자하여 연간 14,000톤까지 생산캐파 증대 계획
- '13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자체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(TANSOME®) 적용한 현대차 차세대 콘셉트카 '인트라도' 출품
-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전주를 중심으로 한 '탄소 클러스터' 조성

7. 전기자동차 및 기타자동차 (ICT제조융합, HS코드 870390)

□ 전기자동차의 전 세계 교역은 '12~'14년간 연평균 43.3%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품목임

* 총 교역규모는 '14년 기준 약 55억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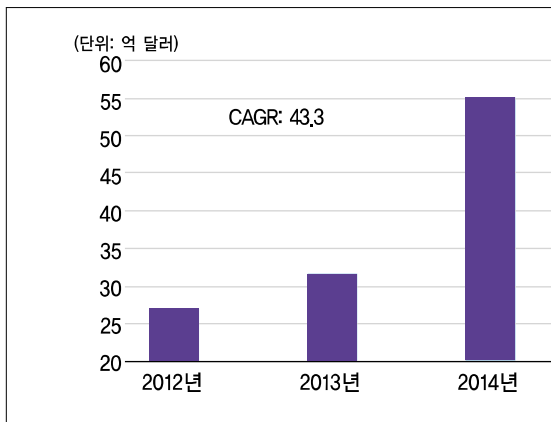
□ 우리나라의 수출 점유율은 2.4%로 세계 9위이며 미국의 1/15에도 못 미치는 수준

○ 시장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유망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육성책은 외국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정부의 관심이 촉구됨

* 미국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8억\$ 투자하고, 중국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6,000\$ 지원하는 등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 중임

* 한국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구매보조금도 작년 1,500만 원에서 1,2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투자가 소극적이어서 성장가능성이 불투명함

<그림 24> 전기자동차 및 기타자동차 세계교역 증가율



자료 : UN Comtrade

<그림 25> 전기자동차 및 기타자동차 국가별 수출점유율

| 국가 | 2012년 점유율 (%) | 2014년 점유율 (%) | 순위변동 (2012→2014)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미국 | 27.0 | 36.2 | 1→1 |
| 독일 | 0.9 | 17.3 | 14→2 |
| 네덜란드 | 3.6 | 9.9 | 6→3 |
| 영국 | 3.8 | 7.9 | 5→4 |
| 프랑스 | 4.7 | 6.0 | 4→5 |
| --- | | | |
| 한국 | 0.03 | 2.4 | 34→9 |

자료: UN Comtrade

<테슬라, 현대차그룹 사례>

- 미국 전기차 테슬라, 모델3 '16년 3월 공개 이후, '17년 말부터 인도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예약 주문량이 1주일 만에 32만 5천 대를 넘으며 폭발적 인기
- 현대차그룹 '18년 까지 플러그인하이브리드·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 개발에 총 13조 3천억 투자하고, 자율주행과 차량 정보기술 등 스마트카 분야에 2조 원 투자 계획
- '16년 1월 친환경차 전용모델 '아이오닉 하이브리드' 출시했으며, 6월 '아이오닉 일렉트릭' 출시 예정

IV. 결론 및 시사점

- 직접소비재 및 비내구 소비재의 수출 비중을 높여 자본재 및 내구 소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 - 직접소비재 및 비내구 소비재는 구입과 동시에 소비되거나 소비기간이 짧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상대적으로 경기불황 시에도 수요가 유지됨
 - 따라서, 수출구조를 세계시장에서의 수입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함과 동시에 경기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
-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은 자체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,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품목의 등장 없이 해당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기 요인이 존재함
 - 더욱이, 해당 품목의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점차 덜 팔리는 품목에 더욱 의존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음
 - 세계시장에서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, 우리의 생산역량에만 집중할 경우, 장기적으로는 시장축소에 따른 구조조정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

<표 7> 10년간 한국수출·세계수입 비중변화

| 구분 | 2004(%) | 2014(%) | 2004-2014 (%p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한국수출 | 61.5 | 73.6 | 12.1 |
| 세계수입 | 36.9 | 36.8 | △0.1 |

- 따라서, 세계시장의 수요변화를 주시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7대 유망 품목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수출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긴요함
 - 본 보고서에서 발굴한 7대 유망 품목에서 선진국 기업을 따라잡기 위한 과감한 투자 필요
 - 선제적 투자 및 산업육성이 이루어진 리튬이온전지를 제외하면 해당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%를 넘지 못하는 상황
 - 과거 80년대 삼성그룹의 반도체사업과 90년대부터 시작된 LG그룹의 배터리 사업투자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듯, 신산업 및 유망품목 선점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요구됨

〈표 8〉 2014년 7대 유망품목 한국 점유율

| 7대 유망품목 | '12-'14년 교역액 연평균성장률 | 2014년 우리나라 점유율 | 2014년 점유율 순위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화장품 | 10.6% | 4.2% | 6위 |
| 조제식품 | 8.8% | 1.6% | 17위 |
| 태양열 | 9.7% | 1.8% | 11위 |
| 리튬이온전지 | 12.6% | 16.0% | 2위 |
| 인체용백신 | 20.7% | 0.7% | 13위 |
| 탄소섬유 | 15.9% | 3.0% | 7위 |
| 전기차 | 43.3% | 2.4% | 9위 |

-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과감히 시행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함
 - 신산업 투자를 위해 자격요건, 입지, 환경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 완화 필요
 - 경쟁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&D 투자, 산학협력, 인력 양성, 정책금융 등의 금융지원 등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함
 - 융합신제품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규제그레이존 해소제도⁶⁾를 활성화하여야 함
 - 새로운 품목에 대한 분류 체계가 부재하거나 규제가 불분명하여, 신제품이 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

<르노삼성 트위지(Twizy) 규제 사례>



- 1~2인승 초소형 전기차량은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
- 르노삼성은 트위지의 도입을 앞두고 치킨 프렌차이즈 전문점인 BBQ와 제휴 맺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나, 도로교통법 상 일반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주행 불가함
- 이에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주행허가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⁶⁾에 나설 예정

6) 진출하려는 신사업에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가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